“청년세대 호스피스 및 활성화 나서자”

불교호스피스협회 10월 14일 세미나 개최

전현수 원장 “불교생사관 청년 홍보”
능행 스님 “호스피스 활동 참여” 당부
지홍 스님 “호스피스활동 신행혁신”



10월 14일 열린 제8회 호스피스 세미나에서는 청년 호스피스 활성화와 인식개선 입장이 모아졌다.

세계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날을 맞아 불교호스피스의 과제를 짚고 인식 확산을 위한 원력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호스피스협회(회장 능행)는 10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문화공연장에서 ‘죽음, 청춘이 묻다’를 주제로 제8회 호스피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진행한 전현수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은 “괴로우면 죽고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안되면 죽으면 되지’란 마음가짐으로 이어져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며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을 따르며 원인에 변화를 주어야 결과가 달라진다. 죽음이 모든 상황의 끝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장은 “맛지마니까야에는 다음 생을 결정하는 세가지 요인 중 금생과 과거생에 한 일과 함께 죽을 때의 상태도 들어간다. 즉, 생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라한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불교적 생사관을 청년들에게 보다 많이 알림으로서 자살예방, 그리고 호스피스 활동가들의 헌신이 더없이 고귀하다. 호스피스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청년 세대에 대한 호스피스 인식 개선과 봉사자 확대에 대한 다양한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협회장 능행 스님은 “힘들고 고단하며 때때로 엄청난 소진이 요구되는 어려운 길이지만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는 이 길 위에 서로 힘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교적 생사관을 청년들에게 보다 많이 알림으로서 자살예방, 그리고 호스피스 활동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도 “젊은 세대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접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성찰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호스피스 관련 단체와 기관,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호스피스 활동가를 성장시키는 작업을 함께 해나가자”고 말했다. 지홍 스님은 이어 “포교원에서 진행되는 신행혁신 운동과 함께 호스피스 협회의 활동은 신행혁신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 활동”이라며 “호스피스의 순수한 가치를 실현해 불교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최정통 성균관대 영어영문과 박사과정의 ‘죽음! Learning? or Acquisition?’, 강숙영 사회복지사의 ‘죽음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정승민 씨의 ‘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연기’, 임주은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석사과정의 ‘사별경험을 통해 배워가는 삶’ 발표가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어린이 청소년 포교 접근방식 변화해야”



‘반야톡’ 펴낸 권진영 법사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를 책에 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아이들이 접하기 어렵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 개발이 시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나 근기근기에 따른 가르침을 내렸다. 이른바 대기설법(對機說法)이다. 아직 불교를 모르거나, 혹은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최근 권진영 동대부여중 교법사가 펴낸 청소년을 위한 〈반야심경〉 해설서 ‘반야톡’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반야톡’은 조계종 포교원의 청소년 포교자료 지원사업으로 발간됐다. 카카오톡 대화창 이미지를 차용해 반야심경 내 한자용어 등 청소년들이 어렵거나 관심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법사가 구어체로 직접 설명하는 방식을 띄고 있다.

특히 소은, 소정, 지찬, 양석, 영진, 상현, 혜린, 권찬, 민아, 나영, 현태, 진수, 정호, 용해, 도훈 등 실제 중학생들이 책 속의 주인공으로 권 교법사에서 학업의 스트레스, 연예 상담, 가족과의 갈등, 진로 문제 등 고민을 털어놓는다. 권 교법사는 이를 반야심경의 내용을 활용해 재치있게 답변해 간다.

10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만난 권 교법사는 청소년들에게 맞는 매체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교법사는 “요즘 아이들은 성장이 빠르고, 인터넷 등 지식 습득의 경로도 많다. 의외로 중학생 시절부터 어른들이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불교계는 적절한 포교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다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 법사는 “중 · 고생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 소스 자체가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며 “웹 게재를 비롯해 삽화 소스 제공 등 포교에 도움이 된다면 열린 자세로 응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반도 희망과 평화 밝혀요”

108산사순례기도회, 108평화걷기대회 개최



108산사순례기도회(회주 선묵 혜자)는 10월 14일 서울 조계사와 광화문 일원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108평화 걷기대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걷기대회에는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선묵 혜자 스님과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평화의 깃발을 앞세우고 각각 평화의 초를 들고 조계사와 종각, 광화문, 인사동 일원을 행진했다.

선묵 혜자 스님은 “한반도와 대한민국, 우리 가정과 마음속에 ‘평화와 희망’이란 화두를 밝혀달라. 대중이 모두 마음을 모으면 남북이 서로 소통하고 공존하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걷기대회에서는 108산사순례기도회가 제작한 평화의초로 한반도 조형물을 장엄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걷기대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한국불교의 중심에 평화의 불을 밝히고 올리는 이 기도와 행진이 한반도 평화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남북은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고통은 사람지고 평화가 항상 하게 하옵소서”라고 서원했다.

노덕현 기자

장맛 빠져든 아이들에 어르신 ‘웃음꽃’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제2회 종로 장(醬)축제 개최


지역 어린이집 아이들과 미니 장독대를 꾸미고 있는 어르신 모습.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는 조금 독특한 장금이가 있다. 드라마 ‘대장금’ 속 장금이도, 조선시대 의녀도 아닌 장 담그기와 장독대 관리 활동을 하는 이곳의 ‘장 마스터’들이다. 지난 10월 18일 장금이 어르신들을 필두로 복지관 어르신들이 장독대를 들고 나왔다. 그간 만

지역주민 참여에 ‘성황’
남녀노소 함께 어우러져

든 장을 판매하고 전통장 관련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연두색 유니폼을 입고 누구보다 순수한 미소를 짓는 어르신들은 드라마 속 장금이보다 고왔다.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이날 복지관 5층에서 제2회 종로장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지역주민뿐 아니라 인근 어린이집,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의 어린이들 300여 명이 동참했다.

누구보다 장축제를 즐긴 참가자는 어린아이들이었다. 자신의 몸보다 큰 장독대를 안아보기도 하고, 장을 입에 잔뜩 묻힌 모습을 서로 놀리며 왁자지껄 웃고 즐기기 바빴다. 처음에는 낯선 풍경에 어색해하던 아이도 사과 고추장을 묻힌 떡꼬치는 더 달라고 어르신을 재촉했다. 사과 · 고구마 고추장, 유자된장은 장 특유의 향이 강하지 않아 아이들에게도 인기였다. 모두 복지관의 어르신들이 직접 담근 것이었다.

이날 체험은 △전통장 배우기 △전통문화체험 △장요리 시식부스 운영 △정성가득 장류 판매로 나뉘어 진행됐다. 관장 정관 스님은 “우리 복지관은 앞으로도 플러스카페, 장체험관 및 장카페와 같은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전통문화 전수에 앞장 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불교상담개발원, 스마트폰 중독예방 나서

학부모 대상 과의존 예방교육 강사 파견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은 증가하는 디지털 중독(과의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사찰 및 불교계 기관에 학부모 대상 디지털 과의존 예방 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지난해 불교계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 7월 교육생 중 10명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종교계 스마트쉼 예방교육 강사로 위촉됐다.

불교상담개발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 과의존 예방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불교계에 중장년층이 많은 현실과 디지털 과의존 청소년의 변화를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교육 강사 파견을 위해 김길영(대림대학교 외래교수), 이경애(이경애심리상담소장), 문진건(동국대학교 명상심리상담학과 교수) 교수를 중심으로 표준강의안 작업이 진행됐으며, 주 강의 내용은 과의존에 대한 이해,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에 대한 이해 및 자녀와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 대처방법 등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하는 본 강사 파견 사업은 총 10번의 강사를 파견할 예정으로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 해소를 위한 학부모대상 교육 강사 파견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찰 및 기관은 10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시간은 90분 가량으로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www.kbcd.org)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02)737-7378

노덕현 기자

